20201206-1322□-□□_□□□□□ 20. 12. 4. □□ 7:27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0년 12월 6일(주일) 제1322호

하나님 사랑 나누는 '엔젤트리'

연결 기다리고 있는 사연 500건 … 엔젤트리 온라인 게시판에서 참여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학한 탈북민에게 고춧가루와 잔멸치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학업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북한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엔젤트리 사연 중 하나다. 고춧가루와 잔멸치, 그 작은 선물이 북한에 자녀를 두고 홀로 남한에 온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다. 작은 관심과 사랑,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될 수 있다.

2020년 엔젤트리 사연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12월 3일 기준으로 500건의 사연이 아직 연결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예배당 예배 인원이 제한되면서 엔젤트리 사연 연결이 예년에 비해 더뎌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0 엔젤트리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엔젤트리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하면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엔젤트리 온라인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인증을 받으면 사연이 게시된다. '게시된 사연 연결하기'를 선택하면 사회선교본부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상세하게 안내해준다.

사진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엔젤트리.

벌써 2020년 엔젤트리 선물을 받고 훈훈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는 이웃들의 간증이 이어지고 있다. 이지숙 권사(양천공동체)가 재소자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 환갑 선물로 목도리를 보냈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한다. 또한 최성애 권사(일산공동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에게 겨울옷을 보내 달라고 사연을 신청했는데 겨울옷을 선물 받은 중국 동포들의 얼굴에 미소가 지워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관련기사 9면〉**.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며 "엔젤트리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문의: 02-3215-343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앱(App)으로도 헌금한다!

'다모음 앱' 활용한 온라인 헌금

이제 안전하고 쉽게 앱(App)으로도 헌금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가 앱을 활용해서 헌금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다모음 앱을 활용한 온라인 헌금 방식이다. 스마트폰에서 'Play 스토어'나 '앱 스토어(App store)'에 접속해 '다모음'을 검색하고 앱을 다운로드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다모음 앱에 접속하고 약관 동의,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 헌금(헌금하기 추가)을 터치해서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ARS 인증을 하면 된다.

다모음 앱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헌금할 수 있다. '헌금하기'와 'QR 스캔' 방법이다. '헌금하기'를 터치하면 온누리교회, CGNTV 헌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주일헌금, 감사헌금, 해외선교헌금, 십일조헌금, 비전헌금, 절기헌금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성도 정보를 등록한 다음 헌금해야 한다. 헌금 한도는 회당 10만 원이다. 수수료는 별도다. CGNTV는 '선교방송후원'을 할 수 있다.

'QR 스캔'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등 매체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헌금하는 방식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온누리교회 예배예약' 앱 출시

'온누리교회 예배예약' 앱이 출시됐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온누리교회 예배예약 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휴대폰 번호로 본인 인증을 하면 온누리교회 성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예배예약 앱에서는 바코드, 예배 예약, 잔여석, 좌석 QR 코드 스캔, 예약 현황, 좌석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등록교인은 온누리교회 아이스쿨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예배당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일회성 바코드가 발급된다.

/ 김영선 기자

차세대 새친구 온라인 등록

차세대사역본부 온라인 가족카드 이용

차세대사역본부가 새친구 온라인 등록을 시작한다.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한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를 제작했다. 차세대에 등록을 희망하는 학생 및 보호자는 온라인(https://forms.gle/khhe9wSjKyDCHvRp8)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개인 정보는 차세대 전임 교역자가 새가족 정보를 확인한 다음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한다. 담당 교역자는 학생(보호자)과 상담을 하고 나서 부서 편입 등의 절차를 이어간다. 교사는 nCare에 학생정보를 등록하고, 새친구반 과정을 실시한 다음 소그룹 반 배정 등을 진행하게 된다. 문의: 02-3215-3521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당회
일 시: 12월 12일(토) 오전 6시 서빙고 본당
안 건: 당회운영위원 선출, 2021년 예산안, 장로 은퇴식

제직회·공동의회
일 시: 12월 13일(주일) 양재 사랑홀
제직회: 2부예배 후
공동의회: 3부예배 후
안 건: 2021년 예산안

인물_ 그 보석 같은 청년들을 만났다 4면 예배_ 셰르파(Sherpa)와 열린새신자예배 5면 특집_ "디지털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6면

20201206-1322□-□□_□□□□□ 20. 12. 4. □□ 7:27 Page 2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윤리학, 절대적 도덕률이 있는가?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윤리학은 선악의 기준이 무엇이며, 그 기준이 어떻게 정립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는 학문이다. 기독교와 이슬람같이 일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적인 도덕률이 있다고 믿는다. 절대자인 신에서 유래한 변치 않고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반면 범신론 혹은 다신론 세계관에서는 상대주의를, 무신론에서는 절대적 윤리기준의 근거 없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기준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윤리의 절대적인 기준이심을 알려주신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선함의 기준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도덕률은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슬람에는 알라가 선한 것이 아니라, 알라가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선이라고 규정한다. 코란에서 선하다고 알라가 인정한 것과 무함마드의 행전인 순나에서 드러난 그와 그의 동료들의 행위 역시 알라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선하다고 규정된다. 문제는 순나에 등장하는 무함마드의 행위가 일반적인 선과는 거리가 있고 심지어는 부도덕하거나 잔인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또한 코란의 규정과 순나의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이 우선이 될 것인지 해석하는 권위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절대적 기준이라 주장하기는 힘들다. 선지자라고 하지만 신이 아닌 인간 무함마드를 선악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문제이지만, 이슬람의 무조건 복종이라는 권위주의에 의해 강제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시대가 변하면 윤리의 기준도 변한다고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도덕률 사이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살인, 도둑질, 거짓말, 간음, 탐욕, 불효, 비겁함은 거의 언제 어디서나 규탄의 대상이 된다. 이런 도덕률 자체의 보편성과 유사성은 우연과 진화에 의존하는 자연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류 공통의 도덕적 유산이 분명하다. 이 공통의 도덕적 유산을 누가 어떻게 정의하든 상관없이 우리 밖에 어떤 완전한 도덕적 잣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 규범을 인간 본성의 법칙 혹은 자연법(Law of Nature)이라 한다.

절대적인 기준 없이 정의는 존재할 수 없으며, 절대적인 윤리의 기준이 없을 경우 도덕성은 존재할 수 없다. 기독교 도덕성은 우리 밖에 절대적인 도덕률이 존재한다고 하는 믿음 위에, 또 그 절대적 도덕률이 우리 존재 속에도 새겨져 있다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다. 이는 창조주의 본성에서 흘러 나와 피조물의 본성을 통해 흐르는 도덕성이며,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반계시이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요 1:9)할 때의 그 빛이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롬 2:14) 그 마음에 새겨진 '양심'을 뜻하는 것이다. 즉, 인간 본성의 법칙, 자연법,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혹은 양심으로 표현되는 것은 스스로를 보여주신 하나님 즉, 절대 선의 정체인 것이다.

한편 십계명이라는 구체적 기준을 통해, 산상수훈 같은 구체적인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통해 성경을 믿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특별계시가 있다. 우리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절대자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세계관에서는 도덕성의 근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자기 자신이 그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개인의 선악에 대한 판단이 사회 전체의 도덕적 표준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만일 개개인의 선악의 판단 너머 어떤 절대적인 것이 없다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에서 누구의 도덕적 기준을 선택할 것인지를 판단할 최후의 수단이 없다. 서로 갈등하는 의견만 가진 채 남겨질 뿐이다. 이것이 도덕적 상대주의의 치명적 약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 절대적인 도덕률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면 절대적인 도덕률에 대해 눈감고 귀 막은 채, 그런 기준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웃들을 만나게 된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비난할 것인가? 그들에게 도덕률을 가르치려 할 것인가? 누구의 기준이 옳은지 싸울 것인가?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비유한 것처럼 기독교는 적이 점령한 지역에 합법적인 왕이 변장한 채 상륙해서 그 지역을 해방시키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작전에 부름 받았다. 전쟁을 지휘하는 왕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도덕률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자기를 따르라고 명령한다. 우리에 의해 그분의 법이 지켜지는 땅이 그의 나라이다. 그 법을 모르는 이웃들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시행되는 구역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돌아온 답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대답을 하시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도덕률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묵상: 성에 대한 성경의 도덕률을 이 시대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가정문제, 이렇게 해결합시다!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아내들은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질문을 쉬지 않는다.

"당신,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난 당신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은 나 없이 살 수 있어?"

이 질문에는 '당신도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있느냐'는 감정이 숨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 남편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내가 아는 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당신 수영 잘하잖아? 어머니는 수영을 못하시니까 어머니 먼저 구하고 당신 구할게."

이런 대답을 들은 아내들은 섭섭하고 야속하기만 하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말귀가 어두워서 답답해 못 살겠다고 하고, 남편들은 아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남자들은 사실과 정보를 주기 위해 대화하고, 여자들은 대화 속에 감정을 숨겨 놓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접근을 잘해야 대화 속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다. 만일 아내가 "여보,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나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부탁해요" 혹은 "여보, 지난번에 당신이 나를 도와줬을 때 정말 고맙고 행복했어요"라고 접근한다면 모른 체 지나칠 남편은 없을 것이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응, 알았어. 걱정마. 내가 도와줄게"라며 벌떡 일어설 것이다.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정중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동네에 식당이 생겨서 남편과 함께 가보고 싶다면 "여보, 우리 동네에 맛있는 비빔밥 집이 생겼어요"보다 이렇게 말 해보자.

"여보, 새로 생긴 비빔밥 집 참 맛있대요. 다음 주에 한번 가보는 것이 어때요? 요즘 비빔밥이 먹고 싶은데 나 한 그릇 사 줄래요?"

감정과 생각을 주고받는 대화가 생각보다 참 어렵다. 보통 대화의 수준을 6등급으로 나눈다. 6등급은 '말 없음'이다. 남자들은 흔히 "그걸 꼭 말로 해야 해? 말 안 해도 우리 서로 통하잖아"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

"남자는 마음에 말을 담아 놓고, 여자는 말에 마음을 숨겨 놓는다."

말을 해도 서로 자기의 채널로 부호화하기 때문에 그 부호를 알지 못하면 소통이 되지 않는다. 말까지 아낀다면 소통하기 어렵다.

5등급 대화는 우리가 주로 일상에서 건네는 대화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등과 같은 말이다. 낯선 사람에게도 건넬 수 있는 특별할 것 없는 말이다. 4등급 대화는 사실과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이다. "옆집이 큰 평수로 이사 간대", "그 집이 차를 샀대" 등이 여기에 속한다. 6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보통 남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역이다.

여자들은 정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옆집 엄마는 큰 집으로 이사 가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넣어서 표현하는 3등급으로 간다. 이때 남편은 '나는 못난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어 입을 다물어 버린다. 더 이상 대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경직되어 버린다.

2등급 대화는 감정과 느낌이 들어간 대화다. "옆집 엄마는 얼마나 좋을까? 부럽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그 남자하고 살아!"라는 말이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2등급 대화에서도 지혜가 필요하다.

"옆집 엄마가 행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엄마 정말 열심히 아끼면서 살더니. 여보, 나도 더 열심히 살게요. 난 당신이 건강하고 열심히 일 해줘서 정말 행복해요. 난 당신이 있어 든든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내가 더 열심히 일 해야겠구나'라고 다짐하며 "여보, 고마워. 우리도 한번 계획을 세워 봅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마지막 1등급의 대화는 공감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대화이다. 아내의 부드럽고 지혜로운 접근이 남편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20201206-1322□-□□_□□□□□ 20. 12. 4. □□ 7:27 Page 3

주일강단

이기복 목사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시편 139:13~16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동참합시다."**

하나님께서 생기와 영을 부어 주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동시에 수십억 명을 만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의 가정의 연합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이 땅에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하나도 똑같은 자녀가 없고,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존재, 독특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며 사명과 목적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오장육부를 보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악' 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evil' 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설명하면 'live' 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악과 생명이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악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죽이는 살인의 역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영적 분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악령들은 치열하게 생명을 죽이려는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은 유대인 남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학살했는데 그것을 뚫고 모세가 태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두 살 아래 모든 남자 아이를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인류역사상 학살은 계속됐습니다. 유물론자들은 공산주의 아래서 수없이 많은 인간을 학살했습니다. 구약의 우상들을 보면 바알을 비롯해서 많은 우상들이 한결같이 잔인하고 음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몰렉과 그모스라는 신은 가나안 땅에 있는 '유아인신제사' 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유아인신제사를 지내면서 동시에 광란 같은 성행위를 제사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상숭배의 뒤에는 음란이 따르고, 음란의 결과로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는 일들이 인류의 역사요,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게 하라", "이 땅을 자녀들의 피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상수리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고 너희 자녀들을 바위틈에서 도살하는구나"고 하시면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이 그 일을 따라서 자행했습니다.

현대의 낙태시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술이라는 이름으로 배 속의 태아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쾌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70년대만 해도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가난을 면해 보려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라',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면서 나라와 언론이 우리를 세뇌시켰습니다. 그때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자녀가 집 안에 가득하고, 그러면 원수가 와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고 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일에 침묵했습니다. 지혜자가 잠잠하면 악한 때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교회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백과 회개 그리고 용서하심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때는 낙태가 산아제한의 방법이고, 태아가 생명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낙태를 했는데 그 이후 태아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겪었던 마음의 고통과 죄책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그때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성도들도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 '바른인권여성단체' 를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성교육 교과서 문제를 다루고, 극단적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운동을 어렵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낙태법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라는 단체를 다시 결성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기자들을 모으고,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나' 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환영사를 하게 되어서 인사말을 쓰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저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남편이 계속 저와 함께 회개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이라(롬 8:1~2)' 는 구절을 암송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돌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일을 말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저에게 "낙태는 안 된다, 생명은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가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딸 빈아, 엄마가 오랫동안 너에게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오늘 고백한다. 그 누구보다도 너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괴로운 일이었기에 말을 못 했단다. 엄마는 죄인 중에 죄인이란다. 배 속에 아기를 낙태한 것으로 인해 그동안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린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단다. 너의 동생이 되었을 아기를 낙태한 일이 그때는 죄인지도 몰랐단다. 주님께는 수없이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구했고 또 분명히 용서하셨으리라 믿지만, 그렇다고 죄책감이 없어지지는 않는구나. 나중에 언젠가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하게 되었다. 엄마는 죄인이란다. 그렇기에 나는 더욱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용서함이 절실하게 다가온단다. 너에게 용서를 빈다. 엄마가 그런 사람이어서 미안해."

그다음 날 새벽 딸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엄마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애를 많이 낳아서 잘 키워서 좋은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사람도 아니고, 엄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어서 그 좋으신 분의 딸이어서 엄마는 좋으신 분이에요.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많이 아파하세요. 엄마가 자꾸 예수님을 피해서 숨을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그 누구도 엄마를 정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내 눈에 넣어도 아까운 내 딸아. 나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일어나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고 말씀하고 계세요. 엄마는 나의 친구이자 롤모델이에요. 엄마 언제나 그랬듯이 사랑하고 사랑해요."

딸의 답장을 받고 프레스센터에 가서 용기 있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취재하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온누리신문에도 글을 쓰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죄는 숨기고 회피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계속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고 서로 자백하면 오히려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용서하심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한 생명을 소중하게 하는 일

지금 나라에서는 태아를 언제 죽이느냐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인구문제로 지구상에서 스스로 소멸될 나라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올해 출산한 아이가 3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낙태는 그것의 세 배입니다. 낙태만 막아도 우리나라 인구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시국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낙태반대 운동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핑계로도 낙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혼모가 아기를 가졌을 때 남자가 가지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태하라고 강요하고 도망가버리고 미혼모만 덩그러니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도 같이 책임을 지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낙태문제를 한국 교회가 다루지 않으면 부흥도 없고 회복도 없습니다.

이번에 '언플랜드' 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태상담을 하던 한 여성이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 여성으로 거듭나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모든 성행위는 책임을 수반하고, 결혼하기 전에 끝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데이트 상대가 그것을 지켜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한 생명을 소중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자녀의 축복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당신들은 전문직이다. 너무 중요한 경력을 쌓는 일을 하고 있다' 는 권장을 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라 정책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도 낙태를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홍빛 같은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생명들을 살려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모태에 있을 때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꼭 태어나야 할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동참합시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201206-1322□-□□_□□□□□ 20. 12. 4. □□ 7:27 Page 4

그 **보석** 같은 **청년**들을 만났다

창조를 디자인하다

'in the beginning' 대표 황혜진 자매

얼어붙은 고용시장,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
이 시대 청년들은 요즘 어떻게 살고 있을까? 기자가 딱 서른 살인데 주위 청년들이 하나같이 "사람 구실 하기 너무 어렵다"면서 우는 소리를 참 많이 한다. 크리스천들은 살기가 더 힘들다.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천답게 모범까지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청년들에게는 대인관계와 직장생활에서 완수해야 하는 숙제가 하나 더 있는 셈이다. 삶과 신앙, 일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 말이다. 그래서 삶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귀하다. 그 보석 같은 청년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만났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수제 가방 브랜드 'In the beginning'을 운영하는 황혜진 자매(요셉공동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남산 아래, 해방촌 신흥시장 인근 골목에는 저렴한 임대료에 끌려 자리 잡은 공방들이 줄지어 있다. 도예, 수제비누, 미술, 의류 등 그 분야도 다양하다. 한국전쟁 이후 피난 온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해서 해방촌이라 불리는데 저렴한 임대료와 그 특유의 분위기에 매료되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핫플레이스로 통한다. 톡톡 튀는 가게와 공방들이 많은 이곳에 'In the beginning'이 자리 잡고 있다. 'In the beginning'은 면 소재 에코백과 파우치 등을 제작 및 판매하는 브랜드이다.

창조의 DNA를 가진 우리는 좋은 소식(복음)을 디자인한다

수제 가방을 만드는 공방 'In the beginning'이 특이한 이유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비전 때문이다. '창조의 DNA를 가진 우리는 좋은 소식을 디자인한다'가 'In the beginning'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디자인한다는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가장 탁월한 디자이너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창조의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이름을 '태초에'라는 뜻을 담은 'In the beginning'으로 지었습니다."

보통 크리스천 기업은 경영주가 크리스천이거나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용품을 파는 경우가 많은데 복음을 디자인한다는 발상이 독특하다. 'In the beginning'에서는 제품에 성경 말씀을 디자인하거나 제품 이름을 성경적으로 짓고 있다.

'In the beginning'이 성경 말씀을 디자인한 대표적인 제품은 'a week' 시리즈다. 천지창조 1주일을 디자인해서 에코백으로 만들었다. 톡톡 튀는 디자인이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상하로 대비되는 'Water'라는 글자와 그 아래 물방울이 그려진 에코백은 하늘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창조한 둘째 날을 표현했다. 탐스러운 포도가 그려진 에코백은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한 셋째 날을 담았다. 단발머리 소녀가 곰과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모습을 담은 에코백은 사람과 짐승을 창조한 여섯째 날을 표현한 것이다. 언뜻 보면 단순한 디자인의 에코백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씀이 숨어 있다. 'In the beginning' 제품이 더욱 매력적인 이유는 성경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제품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런 가방 하나 있으면 잘 쓰겠다' 싶은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다.

> "일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바람이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황혜진 자매(요셉공동체)는 복음을 디자인하는 수제 가방 브랜드 'in the beginning'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구매했는데 요즘에는 넌크리스천들이 더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간신히 꾸려갈 정도의 적은 매출이긴 하지만 복음을 담는다는 비전이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In the beginning'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

황혜진 자매는 원래 남대문시장 액세서리 도매상이었다. 5년 정도 남대문시장에서 도매업을 했는데 안정성이나 수입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 그런데 'In the beginning'을 오픈한 이유가 있다. 직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대문에서 일할 때도 크리스천으로서 뭐라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헌금하고, 선교지에서 필요한 의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바람이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마침 아는 동생과 함께 작은 프로젝트로 에코백을 제작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작한 에코백에 성경적인 디자인을 담으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디자인하는 'In the beginning'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면 소재 에코백과 파우치에 복음을 디자인한다는 발상 자체가 생소했다. 잘 어울릴지도 몰랐다. 하지만 창업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In the beginning'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더 열심히 했다. 그 열심과 도전정신으로 디자인에 복음을 담아 세상에 전하고 있다.

'In the beginning'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복음을 디자인해서 세상에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선교이자 전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후원까지 한다. 황혜진 대표는 적은 금액이지만 매출의 일정량을 한국컴패션에 후원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황혜진 대표는 선한 일을 하나 더 하고 있다. 종로지역자활센터와 협업하고 있다.

"'In the beginning'에서는 원단을 고르는 것부터 완성까지 수제작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매일 공방에서 제품만 만들다 보니까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홍보도 해야 하고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러다 종로지역자활센터를 소개받고 일자리가 필요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주민분들께 일감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업할 때 미혼모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바람이 다른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와 기회

황혜진 자매가 'In the beginning'을 창업한 지 2년차에 코로나19가 터졌다. 의류업계 전반에도 매출 감소가 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황혜진 자매는 신앙의 침체라는 또 다른 위기까지 겪었다. 예배당 예배가 중단되면서 'In the beginning' 제품 디자인의 핵심인 은혜와 감사를 공급받고 말씀을 묵상할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인풋(input)이 있어야 아웃풋(output)이 있는데 한동안 예배당 예배가 중단되면서 신앙의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담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이렇게 디자인하면 잘 팔리긴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회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나한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In the beginning'은 편집숍에도 입점할 만큼 디자인과 제품의 질 모두 인정받고 있는데 적자다. 황혜진 자매는 'In the beginning'이 올해 적자를 면치 못하면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왔다.

"저도 월급을 제대로 못 가져가고 있고, 같이 일하는 동생도 좋은 대우를 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만둬야 하는지,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뜻하지 않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In the beginning'에서 필터를 갈아 끼울 수 있는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한 사이트에 등록했는데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재정을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황혜진 자매와 'In the beginning'의 미래가 기대된다. 황혜진 자매는 'In the beginning'을 크리스천 기업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다. 우리가 그녀의 꿈을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In the beginning
웹사이트: www.inthe-beginning.com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130

20201206-1322□-□□_□□□□□ 20. 12. 4. □□ 7:27 Page 5

셰르파와 열린새신자예배
(Sherpa)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열린새신자예배는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새신자를 위한 예배이다.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장(場)이다. 또한 열린새신자예배는 난생 처음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돕는 세상에 둘도 없는 공동체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열린새신자예배는 셰르파(Sherpa) 같습니다."

김소리 목사(열린새신자예배)는 열린새신자예배를 셰르파 같다고 소개했다. 셰르파는 히말라야 등반을 돕는 안내자이다. 히말라야를 등반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셰르파다. 셰르파의 역할은 등반대가 정상까지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등반에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주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며, 끝까지 동행한다.

열린새신자예배도 셰르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새신자를 위한 섬김을 하고 있다. 열린새신자예배에서는 새신자들이 난생 처음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고 있다. 교회의 모든 것이 낯선 새신자들이 교회와 예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새신자들을 위한 배려도 남다르다. 예배 시간과 분위기, 주제 말씀 선정, 특순 등이 모두 새신자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가장 가까이서 살피고 동행하고 있다. 새신자를 위한 SNS 채널 운영, 기도편지 나누기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열린새신자예배는 매주 주일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린다.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새신자를 위한 배려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고민하는 새신자들이 주말 오전과 오후 시간을 따로 빼서 교회에 온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또한 주말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주일 저녁 7시는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적합한 시간이다. 바로 그 시간에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보다 큰 도전이자 변화는 없다.

난생 처음 교회에 온 새신자들은 기대와 설렘, 불안과 낯섦을 한가득 안고 온다. 열린새신자예배는 그 누구보다 새신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불안과 낯섦을 예배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반갑게 맞아주는 웰컴팀(열린새신자예배 안내팀)의 인사가 최고다. 얼마나 친절하고 포근한지 새신자들이 마음을 활짝 열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예배당에 앉으면 보이는 강대상은 또 얼마나 근사한지 모른다. 쏟아지는 따듯한 조명이 한껏 긴장하고 얼어있던 마음을 녹여준다. 설교 주제에 맞게 꾸며진 무대는 새신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부족함이 없다.

열린새신자예배의 특순은 새신자들의 마음에 기대와 설렘을 채워주는 시간이다. 거의 매주 다양한 문화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가수, 바이올리니스트, 플로리스트, 동화구연지도사 등이 선보이는 완성도 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멋진 공연만 보는 게 아니다. 게스트들의 간증, 공연의 주제와 내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다. 새신자들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열린새신자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있다.

계절과 시기, 시대적 상황이나 흐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는 주제 설교는 단연 으뜸이다. 지난달은 '가을에 피는 꽃'이 주제였다. 열린새신자예배 담당 김소리 목사가 '순정의 꽃: 코스모스', '감사의 꽃: 국화', '바라봄의 꽃: 해바라기', '축복의 꽃: 포인세티아' 등을 주제 삼아 성경 속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갔다.

열린새신자예배에는 성도들이 직접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도 있다. 성경봉독 순서다. 새신자들이 강단에 올라와 성경 말씀을 봉독한다.

열린새신자예배 플로리스트 초청 특순.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면서는 가정에서 성경봉독 영상을 보내오기도 한다. 새신자들이 예배에 더욱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탁월한 방법이다.

열린새신자예배에는 특별한 순서가 하나 더 있다. 새신자들의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기도편지 나누기'다. 열린새신자예배에서는 SNS 채널을 활용해서 새신자들의 기도제목을 받고 있다.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기도제목들이 도착하면 열린새신자예배 리더십과 중보기도팀이 새신자들의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고 중보기도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기도제목은 열린새신자예배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한다.

기도편지 나누기를 통해 가정의 회복을 경험한 새신자도 있다. 직장 퇴직과 신앙적 문제로 가정에서 갈등을 겪다가 집 밖에서 생활하던 A 성도가 가족들이 남긴 기도편지를 보고 가정으로 돌아왔다.

윤준석 목사(열린새신자예배)는 "그날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면서 "새신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가정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신자들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랑, 헌신, 섬김…
새신자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

이지원 목사(열린새신자예배)는 열린새신자예배를 "소소하지만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이 목사의 말대로 교회가 낯설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를 주저하던 성도들이 열린새신자예배에 와서 찬양을 따라 부르고,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성도가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새신자들을 향한 열린새신자예배의 사랑과 헌신, 섬김이 마음을 흔들어 놓은 덕분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다.

박상민 팀장(열린새신자예배)은 "영적으로 연약한 새신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열린새신자예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적응하고, 성장해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역칼럼

영적 등반 돕는 영적 셰르파

히말라야 고산 등반을 돕는 셰르파(Sherpa)는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베이스캠프까지만 짐을 나르는 저소포터, 베이스캠프에서 원정대를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쿡, 베이스캠프와 마을을 오가며 우편물이나 간단한 짐을 운반하는 메일런너, 베이스캠프 이상 고소캠프까지 안내하는 고소포터 등 셰르파들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 원정대의 등반을 돕는다.

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길을 안내하고 돕는 열린새신자예배에도 다양한 영적 셰르파들이 필요하다.

우선 예배의 자리로 새신자들을 초청하고,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필요하다. 열린새신자예배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새신자가 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교회 한번 나가볼래?", "나랑 같이 예배 한번 드려보지 않을래?"라고 한 마디씩만 건넸으면 좋겠다.

또 열린새신자예배가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새신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하는 성도들이 필요하다. 열린새신자예배에서는 매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 믿음이 약한 새신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새신자들에게 온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새신자들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줄 중보기도자들이 꼭 필요하다.

이 외에도 열린새신자예배의 SNS 채널, 유튜브 채널 등을 홍보해줄 성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성도, 새신자들을 돌보며 세례와 교회 정착까지 도와 줄 성도들이 필요하다. 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잘 정착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엿한 일꾼이 되기까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도움이 필요하다. 온누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새신자들의 영적 등반을 돕는 영적 셰르파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김소리 목사(열린새신자예배)

20201206-1322□-□□_□□□□□ 20. 12. 4. □□ 7:27 Page 6

“디지털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디지털 중독의 위험

코로나19는 디지털 중독도 심화시켰다. 디지털 중독이란 디지털 기기 과몰입 상태로 디지털 기기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증상을 의미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디지털 중독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산다. A형제(SNS공동체, 36세)에게도 스마트폰이 필수품이다. 모든 일과를 스마트폰과 함께 보낸다. 기상 알람부터 시작해서 계산, 메모, 이메일 확인, 음악 듣기, SNS 활동 등을 스마트폰으로 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들고 욕실로 향한다. 샤워하면서 음악을 듣기 위해서다. 출근해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먹는다. 요즘에는 TV 대신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를 주로 시청한다. 코로나19 관련 뉴스들도 스마트폰으로 검색한다. A형제의 스마트폰 중독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본인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SNS를 더 많이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근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SNS가 가장 손쉽기 때문입니다. 회사 업무도 사내 게시판보다 SNS로 공유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SNS 알림이 오면 바로 확인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종종 가족들이 ‘스마트폰 그만 좀 보라’고 잔소리하는데, 저는 제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는 사용하지 않나요?”

디지털 중독은 질병 치료방법은 디지털 거리두기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부터 본다면? 잠들기 전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어야 한다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디지털 중독을 의심해봐야 한다. 디지털 중독이란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과몰입 상태를 말한다.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SNS 중독 등을 모두 디지털 중독이라 할 수 있다. 비슷한 말로 ‘노모포비아’가 있다. 노모포비아(Nomophobia)는 ‘No mobile phone phobia’의 줄임말로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증상을 뜻한다. 영국 케임브리지사전에서 2018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노모포비아’를 꼽았을 정도로 현대인들의 디지털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다.

문제는 디지털 중독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더욱 심해졌다는 데 있다. 지난 6월 중독포럼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전후 음주,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도박, 음란물 등 중독성 행동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44.3%(조금 늘었다 28.7%, 매우 늘었다 15.6%)로 ‘줄었다’(4.1%)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온라인 게임 또한 ‘늘었다’는 응답이 24.4%로 ‘줄었다’는 응답 16.3%를 앞질렀다.

눈여겨볼 사항이 있다. 평소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스마트폰 중독, 온라인게임 시간이 더 늘었다는 점이다. 평소 우울이나 불안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의 온라인게임 시간 증가율이 각각 5.8%, 4%인데, 우울이나 불안이 심각한 사람의 온라인게임 시간 증가율은 8.7%, 13.1%로 나타났다. 온라인게임 지출액을 비교해도 우울이나 불안이 심하지 않은 사람의 지출액 증가율이 1.4%, 0.7%인 반면, 우울이나 불안이 심각한 사람의 게임 지출액 증가율은 7.2%, 6.0%로 조사됐다. 평소 우울이나 불안이 심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게임 시간 및 지출액이 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서도 우울이나 불안이 심각한 사람이 ‘매우 늘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21.7%와 25.6%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15.2%, 13.2%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디지털 중독이 심해지면 ‘디지털 치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치매는 디지털 기기에 의존한 나머지 두뇌 활동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한다. 런던대학교에서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기기 사용 관련 조사결과가 충격적이다.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이 ‘수면부족’과 ‘마리화나 중독’보다 지능지수(IQ)를 저하시킨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디지털 중독의 심각성 때문에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등재하기도 했다. 영국 의원들도 지난해 ‘SNS 중독’을 일종의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디지털 중독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디지털 중독은 질병이다. 치료해야 한다. 치료방법은 디지털 거리두기다.

디지털 거리두기로 비우고 아날로그로 사랑을 채우자!

호주의 마니 비널(프리랜서 칼럼니스트)이라는 사람이 최근 자신의 ‘SNS 중독 탈출기’를 소개하며 제시한 방법이 있다. 크게 세 가지다.

첫째, ‘SNS 활동 덜 하기’다. 스마트폰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앱을 삭제하고, 꼭 필요한 한두 개 앱만 사용한다. 둘째, ‘SNS 사용 일정 조정하기’다. 하루 이용시간을 한 시간으로 정하고 실천했다. 셋째, ‘선택적 SNS 사용하기’다. 스마트폰에 SNS 앱이 없어지면서 의미 있는 콘텐츠(잘 쓴 기사, 팟캐스트 등)에 전념할 시간이 더 많아지고, 책도 더 읽게 되었다고 했다.

여기에 힌트가 있다. 바로 ‘디지털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디지털 기기 사용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방법은 단순하다. 스마트폰에 있는 불필요한 앱을 삭제하고, 알림도 끈다. 하루 사용 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침대로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말아야 하고, 출퇴근길에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도 디지털 거리두기의 한 방법이다.

디지털 거리두기로 비워진 공간을 아날로그로 채우면 정말 좋다. 감사일기 쓰기, 종이책 읽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크리스천이라면 디지털 거리두기를 실천할 기회가 더 많고 그 방법도 쉽다. 매일 큐티 묵상, 성경 필사, 임마누엘 일기(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지 기록함으로써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도구) 쓰기를 실천하면 된다.

최용준 목사(이촌공동체)는 지난 여름방학 특강에서 “임마누엘 일기를 쓰면서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코로나19로 인해 혼란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일기 쓰기를 권면했다.

가정예배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디지털 거리두기 대안이다. 스마트폰 등 눈과 정신을 빼앗는 디지털 기기들을 잠시 끄고, 가족구성원들이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는 일련의 과정(서로 모여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기)이야말로 디지털 거리두기로 인해 비워진 공간을 사랑으로 채우는 최고의 방법이다.

사도 바울은 중독의 결과로 죄의 종이 된다고 경고했다(롬 6:16). 또한 크리스천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후 4:18).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법

1. 대중교통 이용할 때 스마트폰을 꼭 꺼낸다
2. 스마트폰을 자기 전까지 사용한다
3.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다
4.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확인한다
5. 충전기와 보조배터리를 들고 다닌다
6.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7. 스마트폰 때문에 할 일을 못 한 적이 있다
8.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9. 가족, 친구들과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10.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11.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을 본 적이 있다

** 5개가 넘으면 위험 단계, 8개 이상은 심각한 중독

디지털 거리두기 방법

1. 사용 시간 체크하기
2. 스마트폰 앱 정리하기
3. 물리적 거리두기가 필요
4. 아날로그로 돌아가기

20201206-1322□-□□_□□□□□ 20. 12. 4. □□ 7:27 Page 7

전문가 기고

코끼리와 기수의 주도권 싸움

SNS 중독으로부터 거룩함 유지하는 방법

한건수 교수
(수원 온누리교회, 국민대 겸임교수)

"남편이 SNS 중독인 것 같아요."

신혼여행 첫날부터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하느라 손에서 스마트폰을 못 떼는 신랑에게 자기도 모르게 화를 냈다는 한 자매님의 푸념을 들은 적이 있다. 신혼여행 이후로도 마치 어린아이를 꾸짖듯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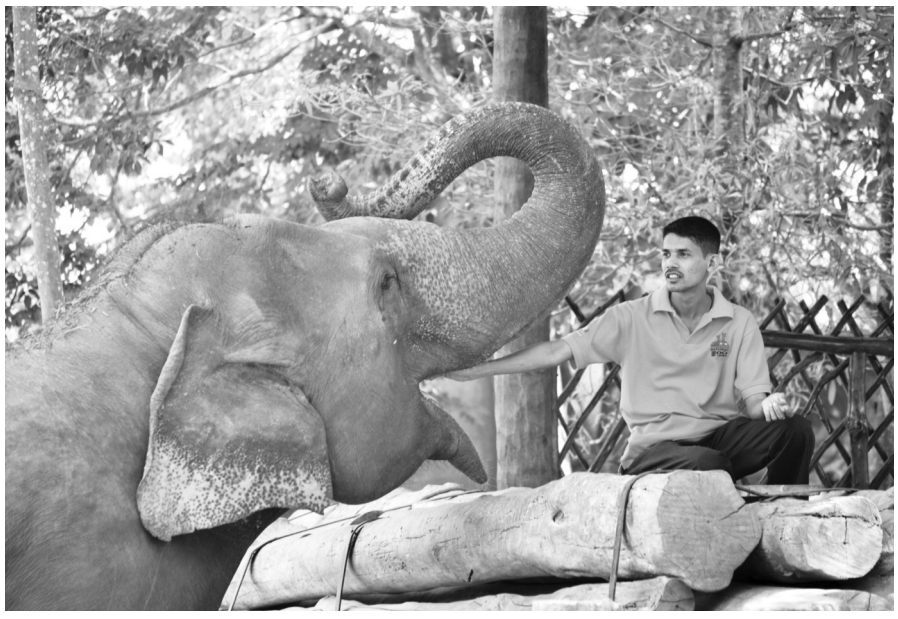
SNS가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일상에 깊이 들어왔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으로부터 그간의 소식을 직접 듣지 않고도 그의 소소한 일상을 파악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 일상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SNS의 영향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일상이 된 요즘 SNS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SNS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책 한 권 VS 4D 영화 티켓 한 장

코끼리를 타 본 경험이 있는가? 필자는 수년 전 태국에 갔을 때 코끼리를 탄 적이 있다. 코끼리를 타고 크게 두 번 놀랐다. 하나는 생각보다 코끼리 털이 까칠까칠해서 놀랐고, 다른 하나는 코끼리 등 위에서 본 고도가 상당히 높아서 놀랐다. 필자가 탄 코끼리는 앞 코끼리를 따라갔고, 앞 코끼리는 그 앞의 기수가 탄 코끼리를 쫓아갔다. 기수가 탄 코끼리가 선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했다. 선두에 선 코끼리가 기수의 지시에 저항 없이 따라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베스트셀러 〈스위치〉의 저자이자 금세기 최고의 조직행동론 전문가로 불리는 칩 히스와 댄 히스 형제는 버지니아대학의 심리학자인 헤이트의 '코끼리와 기수의 비유'를 인용하며 선택과 행동에 대한 심리적 이유를 설명하였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코끼리는 단기적인 보상에 움직이는 감성적인 측면을, 기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이성적인 측면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감성적인 코끼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마음대로 가고자 할 때, 기를 쓰고 목적지로 향하게 하려는 기수와의 한판승부가 내면에서 자주 일어난다. 누가 주도권을 잡는지에 따라 일상의 모습이 달라진다.

만약 눈앞에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 한 권과 리얼하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4D 영화 티켓 한 장이 있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우리의 시선이 외적인 것에 집중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고 무관심해진다. 내면의 기수의 역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반응해야 한다."

책을 선택했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감성적인 코끼리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고하는 이성적 기수가 내면에서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4D 영화 티켓을 선택하고 빨리 영화관에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기수보다는 코끼리가 당장의 즐거움 속에서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와 기수는 삶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SNS에 쉽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자. 기수와 코끼리 중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았을까? SNS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기수가 주도권을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가 그렇듯 지인의 흥미로운 소식과 자신이 올린 소소한 일상에 대한 SNS 친구들의 빠른 반응 때문이라면 언제나 그러했듯 내면에는 코끼리가 기수를 상대로 기선을 제압하고 있을 것이다.

SNS의 새 소식 알람이 울릴 때마다 코끼리는 즐거웠던 경험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반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기수는 코끼리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적지를 제시하지만 코끼리는 현재의 즐거움에 빠져 기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즐거움이 코끼리를 반응하게 하는 힘이다.

필자는 5년 전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잠시 머물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믿음의 가정과 좋은 나눔의 기회를 가졌다. 지금도 그분들의 소식을 SNS를 통해 접할 때마다 과거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그들의 일상을 담은 SNS를 보며 필자 내면의 코끼리가 반응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즐거움에 대한 반응은 진부한 일상을 새롭게 하는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즐거움에 반응하는 빈도가 주변에서 염려할 정도로 많아져서 스스로 통제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내부에서도 코끼리에 대항하여 기수가 저항하기 시작한다. 기수는 현재의 즐거움에만 머무는 것을 우려하며, 미래의 분명한 방향과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향하라고 코끼리에게 이야기한다.

빨간 불의 영적 상태를 다시 파란 불로 바꾸기

필자의 SNS 친구 중에서 일상의 단상을 매일 SNS에 올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몇 있다. 그중 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SNS를 중단했다. 일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글을 남기고 SNS 활동을 멈춰버렸다.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이런 것이 바로 기수가 코끼리에게 장기적인 목적지를 보게 하면서 현 위치를 자각하게 하는 대목 아닐까 싶다.

이와 반대로 기수가 내부에서 힘을 잃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필자가 관찰한 바로는 내부에서 자리를 비운 기수의 빈자리에 외부의 특정 기수가 앉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부 코끼리의 기수 역할을 한다. 외부의 기수는 상황에 따라서 자녀의 진로를 걱정하는 엄마나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집안일로 말다툼을 일으키는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대상이건 외부 기수로부터 끊임없이 일방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내부의 코끼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지쳐가고, 급기야는 기수의 눈을 피해 자기만의 시간을 더욱 즐기거나 반대로 완전히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책 〈자기절제사회〉 저자이며 인기 저널리스트인 대니얼 엑스트는 자신에게 나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해로운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표현하며, 한 종류의 중독에 취약한 사람은 다른 종류의 중독에도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코끼리가 현재의 즐거움에 빠져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기수가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통제불능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삶의 균형이 깨져서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기수가 역할을 해야 하는 영적 상태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빨간 불의 영적 상태를 다시 파란 불로 바꾸기 위해 코끼리와 기수는 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기회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

물질적 번성과 쾌락에 그 빛을 잃어가던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전 6:12).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 된 권리뿐 아니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설계하고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하셨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된다. 그 결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관심해지게 된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다. 이제 우리 내면의 기수의 역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야 할 때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잠잠히 반응해야 할 때다. 일상의 멈춤을 통해 우리 안에 방황하던 코끼리와 기수가 은혜로 인해 다시금 올바른 방향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20201206-1322□-□□_□□□□□ 20. 12. 4. □□ 7:27 Page 8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청년부 영적 성벽재건 52일 기도회 'Build-Up'

나의 기도 여정은 이제 시작!

요셉청년부에서 실시한 Build-Up 기도회가 52일 동안의 여정을 끝마쳤다.

52일 동안 진행된 요셉공동체 Build-Up 기도회가 끝났다. 그러나 나의 기도 여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깨닫는다.

처음 요셉공동체 Build-Up 기도회를 한다고 했을 때 고민했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기도회에서 과연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내 삶에서도 영적으로 무너진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요셉공동체 Build-Up 기도회에서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다.

기도회 첫날 목사님께서 "개인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회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나는 '지금 내 안에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에 대한 묵상을 시작했다.

Build-Up 기도회는 찬양을 시작으로 15분 동안 말씀을 듣고, 중보기도와 개인기도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그 순서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찬양하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면서 어느새 온전히 Build-Up 기도회에 집중하고 있었다.

한 시간이 짧은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 시간을 온전히 구별해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셨을 것이다.

무엇보다 Build-Up 기도회에 참가하면서 중보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한 영혼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했다. 주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면서 우리 삶에 공감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같은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친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나는 개인적인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였다. 그러나 Build-Up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중보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게 되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을 때 성벽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었다. 영적인 기쁨을 회복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골방에서 드린 Build-Up 기도회는 무너져있는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이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고전 3:16).

처음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 앞섰는데 기우였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걱정을 넘어서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각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시고,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다.

요셉공동체 Build-Up 기도회에서 간구한 모든 기도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실 것이다. 나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싶다.

/ 심균 자매(요셉청년부)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허브대학부 '라이크 다니엘 프로젝트'

다니엘을 본받아

김수현 자매(허브대학부)는 하루 세 번 '라이크 다니엘 프로젝트'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10).

내가 다니엘의 나이가 되어 다시 읽은 다니엘서는 어릴 때 읽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 믿음과 삶의 시련을 겪고 있는 때라 그런지 더욱 마음에 와 닿았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육체적 아픔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나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지혜를 갖고 싶다' 고 생각했다. 혼자 매일 기도하고 있기는 한데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허브대학부에서 '라이크 다니엘 프로젝트' 기도회(이하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다. 하루 세 번(오전 8시 30분, 오후 12시 30분, 밤 10시 30분) 온라인으로 모여 15분 동안 기도했다. 처음에는 시간을 맞추고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기도회가 시작하기 10분 전과 5분 전에 알람을 맞추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 시간에 기도드리기를 거듭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그 시간이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 하루 세 번 15분씩의 기도가 어려운 줄만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내가 하루를 버틸 에너지를 선물해주었기 때문이다. 기도의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것,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일과 중에도,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는 일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루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설정해놓았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다. 감사하고 행복하다.

평소에는 눈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될 때가 많았다. 그러나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평소 혼자 기도할 때 놓치고 있던 기도제목들을 지체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더욱 힘이 났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든든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와 기도와 나눔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시기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년 세대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 많다. 그러나 다니엘을 본받아 하루에 세 번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찾으려는 기도가 믿음의 등불이 되리라 믿는다.

기도를 통해 삶의 용기를 얻고,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하나님 옆에 붙어있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시 116:17).

/ 김수현 자매(허브대학부)

20201206-1322□-□□_□□□□□ 20. 12. 4. □□ 7:27 Page 9

코로나19, '이웃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2020 엔젤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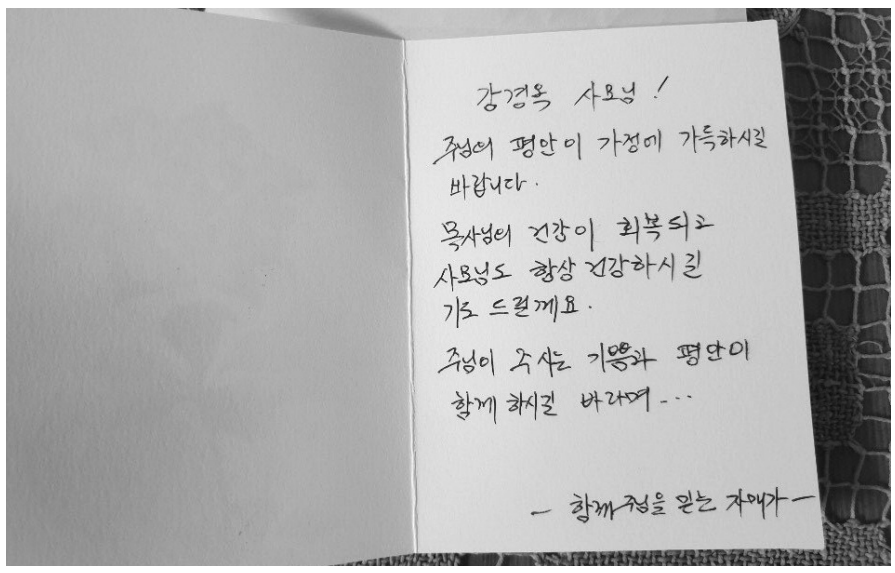
"행복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2020 엔젤트리가 한창이다. 사연 게시가 1주일 남았는데 벌써 사연대상자들에게 감동과 따뜻한 선물이 전달되고 있다. 선물을 보내는 성도도, 사연을 신청한 성도도, 사연대상자 모두에게 커다란 은혜가 되고 있다.

이지숙 권사(양천공동체)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엔젤트리 사연을 뽑아서 선물을 보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로비에 전시된 엔젤트리 게시판에서 사연을 뽑았다. 올해 사연에는 환갑을 맞이한 어머니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목도리를 선물해 달라는 어느 재소자의 부탁이 적혀 있었다.

"수감 중에 어머니의 환갑을 챙겨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드님의 마음으로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예쁜 따뜻한 목도리를 골라서 선물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선물을 받으시고는 무슨 연유로 선물을 보냈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아드님께서 보낸 선물이라고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엔젤트리를 통해서 '행복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성애 권사(일산공동체)는 2년째 함께 일하는 중국 동포들을 위해 사연을 신청하고 있다. 타국에서 생활하는 직장 동료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올해도 사연을 신청했는데 벌써 선물이 도착해서 동료들의 얼굴에 미소가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



어느 성도가 엔젤트리를 통해 이웃에게 보낸 엽서.

"언니들이 스웨터나 가디건을 많이 입어서 옷을 선물해 달라고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그냥 선물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말씀과 편지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11월과 12월 내내 선물이 와서 정말 풍성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허선자 씨(56세)가 동료들을 대신해서 선물을 보내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엔젤트리를 통해서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인사도 못해서 다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옷 따뜻하게 잘 입겠습니다."

이미숙 권사(동대문중랑공동체)는 엔젤트리를 통해서 신발 한 켤레를 선물 받았다. 이 권사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가족실버케어센터' 센터장이다. 코로나19로 센터운영이 어려워지자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성도가 사연을 신청했다. 이미숙 권사는 신발 한 켤레를 선물 받고 엔젤트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는지를 몸소 체험했다고 고백했다.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엔젤트리에 사연을 보내기만 했었는데 제가 엔젤트리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선물 받은 신발을 신을 때마다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큰 감동과 위로가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따뜻함이 전해옵니다. 엔젤트리는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아직 엔젤트리에 동참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꼭 동참해주십시오. 이웃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엔젤트리 사연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휴대폰번호 인증을 마치면 엔젤트리 사연이 연결된다. 연결된 사연을 선택하면 사회선교본부에서 문자메시지로 상세한 안내사항을 전달해준다. 그 안내를 따라 선물을 보내고 엔젤트리팀에 보고하면 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OBC 로마서 과정

내가 배우고 깨닫고 얻은 선물

로마서 강의(1~14과)를 들으며 떠오른 첫 질문은 "내가 바로 영적 유대인이 아닐까?"이다.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부모님과 가족, 출신학교(미션스쿨), 온누리교회 출석교인임을 자랑으로 삼은 적이 많지 않았나 반성했다.

두 번째 의문은 "나의 영적 가난은 어떤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이다. 어거스틴이 말한 '죄와 관련한 인간의 네 가지 상태' 중에서 나는 두 번째(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나 세 번째(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는 것 같다. 죄 사함과 가리움을 증언한 다윗처럼 복 있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믿음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행위만으로 칭의가 되지도 않는다는 진리를 꼭 붙잡아야만 하겠다.

세 번째 도전은 "나는 누구의 종인가?"이다. 최근 한 워크숍에서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삶의 가치로 중요시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서슴없이 영성과 학력이라고 답했는데, 이제 보니 옳은 말이 아니었다. 내가 세상의 잣대와 기준, 프레임을 무시하지 못했기에 내게 유리한 고지를 찾아 그 그늘 아래 숨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7강을 들으면서 '율법이 죄냐?' 라는 논의에서, '삐딱함(perversity)'을 설명한 어거스틴의 청소년기 배 도둑질 예화에서 나는 특히 공감을 느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즈음 구멍가게를 하는 어머니의 돈 통에서 지폐를 몇 장 훔쳐 케이크 상자에 넣어뒀다가 들켜서 엄청 혼난 일이 있다. "안 돼!"라는 말을 들으면 해보고 싶은 원죄적 충동이 율법에 반항하는 삐딱함이었다니. 내가 지향하는 소망은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인이 되고 싶은 것이다.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온전한 새사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다고 다짐했다.

정연봉 권사(대전 온누리교회)가 온라인 OBC 로마서 강의를 듣고 있다.

로마서 8장 37~39절을 통해 작금의 팬데믹 상황의 의미를 읽고 "넉넉히 이겨내리라"며 격려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또 로마서 13장 8~10절 말씀에서 '사랑은 갚아야 할 빚'이며 '율법의 완성'임을 다시금 확인한 나는 드디어 로마서 13강 강의 중에서 평생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운명적 문구를 만났다. Rupert Meldenius의 언급이다. "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서 사랑을!"이다. 참 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다투면서 관계가 흐트러지는 나를 반성하고, 갈등을 넘어 사랑과 소망을 다짐하며, 그 결심과 실행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다고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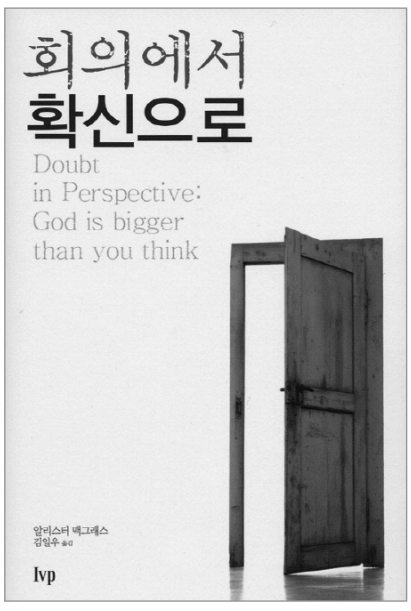
로마서 16장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 24명의 이름을 직접 거명했는데, 그 속에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 성별이 망라되어 있다. 브리스길라를 그녀의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거명한 점이 눈에 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라" 했고, 참으로 어려운 일, 닮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신비한 계시,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지혜를 알게 하기 때문이다. 이번 온라인 OBC 로마서 과정은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는 성도의 기본적 소명을 확인하고 그 실천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큰 선물의 시간이었다.

/ 정연봉 권사(대전 온누리교회)

20201206-1322□-□□_□□□□□ 20. 12. 4. □□ 7:27 Page 10

책 읽어주는 목사

영적 근력이 단단해지는 시간



〈회의에서 확신으로〉
알리스터 맥그래스 저 | IVP | 10,000원

내가 나누고 싶은 이 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웠던 지난 여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힘겹게 모여 '이사 감사예배'를 드렸던 한 성도님께 추천해 드렸던 책이다. 그 성도님은 이미 1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라고 고백하셨다.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헌신적으로 섬기셨던 성도님의 고백에 조금은 당황하고 놀랐다. 그러나 이내 모태신앙으로 단단한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懷疑)와 원망으로 고민하고 방황했던 나의 시간이 떠올랐다.

이 책의 저자인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21세기를 이끄는 복음주의 기독교 사상가이다. 옥스퍼드대학의 자연과학도였던 그는 대학에서 만난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회심했다. 과학자의 삶을 뒤로 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 역시 회의에 빠지기도 하면서 더욱 진리를 깊이 탐구하며 깨닫게 되었다.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 발견한 삶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여러 저서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역설하고 있다. 이 책 역시 회의에 관한 명쾌한 설명을 통해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과 위안을 주고 있다.

저자는 먼저 회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던진다. 회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계속 나타날 것이고, 신앙생활은 곧 그러한 싸움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의심들과 벌이는 싸움을 주님께 맡기려는 태도이고, 그러한 의심이 우리가 이미 체험한 회심을 결코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회의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기에 회의를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옛 성품에 대항하는 것이고, 회의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 반영되는 한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회의를 높이 사고 믿음을 불신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비판받고 의문을 칭찬하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포스트모던 문화의 가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문화 전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 냉소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의심한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열린 마음과 관용을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시대 흐름이 복음에 대한 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 대한 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관한 회의를 낳게 되었다.

저자는 내면의 회의에 대해 너무 깊이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기회 삼아 영적인 성장의 자양분 삼으라고 권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만나는 회의의 연속이었다. 점점 힘들어져만 가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험난하고 힘들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약속은 결코 변함없음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향해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오늘날 성도의 삶 역시 영적 광야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의 감동과 감격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는데, 영적인 기근을 맞이하게 되고 회의가 싹트고 좌절과 실망, 나아가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의 영적 근력이 단단해지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끈질기게 전진할 때 약속의 땅에 개선가를 부르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이들, 회의와 의심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이들이 확신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이 뿌리 깊은 믿음의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현석 목사
(대전 온누리교회)

꼭 봐야 할 영화

언약 속 비밀을 맞이하라!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렸다. 예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숨겨둔 언약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는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역사를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비밀이 우리의 영성을 두드린다.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언약 속 비밀을 맞이하라!"

이 영화를 소개하는 문구다.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에서 밝히고자 하는 숨겨진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은 갈릴리 가나에 숨겨진 고대 인류학적 근거를 통해 성경 속에 나오는 2,000년 전 하나님의 언약 '예수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담아낸 기독교 다큐드라마이다. 이 영화는 예수의 재림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이 시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 왜 재림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은 예수의 재림에 대해 '언제(when)' 다시 오시는가보다 '왜(why)' 다시 오시는지에 집중한다. 예수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지에 집중하다 보면 그 끝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다.

지난달 26일 극장가에 개봉한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이 벌써 뜨겁다. 수많은 네티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리와 진실을 깨닫게 됐다", "영화의 첫 장면부터 가슴이 뛰었고, 마지막 장면과 해설은 지금도 나를 긴장시키고 두렵게 만든다" 등의 평을 남기고 있다.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에서는 배우 장광 장로가 내레이션 했다. 가까운 롯데시네마 영화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모래 그림'

바람이 모래 위에
그림을 그려 간다
흔적을 내 두려
몫으로 알고
너의 피리는 무엇을 그려 가나
나의 건반은 누구를 부르는가

몫을 진하게 칠하려
박동은 잠시도 그치지 않지
흔적을 깊이 새기려
숨소리는 늘 헐떡거리지

흔적이 사라져 가도
몫이 묻혀 잊혀져도
나는 현을 퉁기지
너는 북을 울리지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기록되지
들리지 않아도 누군가는 기억하리

20201206-1322□-□□_□□□□□ 20. 12. 4. □□ 7:27 Page 11

2020 순장블레싱 스킷드라마 '덕분愛'에서 온누리교회 목회자와 순장, 리더십들이 연기하고 있다.

"순장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2020 순장블레싱' … 순장 3,051명 축복

2020 순장블레싱이 지난 11월 28일(토)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과 온라인으로 막 올랐다. 2020 순장블레싱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온누리교회 순장 3,051명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2020 순장블레싱은 오프닝 영상, 김병식 순장(이촌공동체) 간증, 스킷드라마 '덕분愛', 이재훈 담임목사와의 대담, 온누리 순장 어워드 및 선물 증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스킷드라마 '덕분愛'에서는 온누리교회 목회자와 순장, 리더십들이 출연해서 온라인 순예배와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필사를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재연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대담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가장 가정다운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순장들이 가장의 마음으로 순원들을 품고 섬길 때 온누리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권면했다.

김규한 순장(강남D공동체)은 "순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 한 해였다"면서 "부족한 순장이지만 순원들과 영적 영양분을 잘 나눠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의춘 순장(이촌공동체)은 "'자신의 연약함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순원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조언이 인상 깊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추세에서도 순원들의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도록 말씀 나눔에 더욱 힘쓰는 순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남대문희망공동체 성경필사 제본책 증정

동자동 쪽방촌 주민 7명 신약성경 필사 완료

지난 11월 29일(주일) '남대문희망공동체'(용산구 한강대로 363-2 ISB 서울빌딩 2층) 성도 7명(김기완, 김진수, 김춘찬, 박은숙, 부평익, 이성기, 정남애 성도)의 신약 성경필사 완성을 축하하고 제본책을 증정하는 행사가 열렸다. 신약 성경필사를 완성한 성도 7명은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 사는 주민들이다.

한화수 목사(남대문희망공동체 담당)는 '나이보다 중요한 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한 목사는 "나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라며 "뜻을 세우고 삶에서 행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권면했다.

김춘찬 성도는 "내가 성경을 필사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간증했고, 박은숙 성도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무사히 완성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김경희 권사는 "성경필사를 하면서 글을 잘 모르던 분이 한글을 깨우치고, 술로 연명하던 사람들이 술을 끊거나 줄이게 되었다"면서 "남대문희망공동체 봉사자 모두가 뿌듯함과 큰 감동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무슬림에게 직업교육을 하며 선교하는 '스타트리 협동조합'이 개원예배를 드렸다.

'NGO 더멋진세상 해외 장기사역자 모집

아프리카에서 농업, 지역개발, 교육 담당

NGO 더멋진세상에서 해외 장기사역자를 모집한다. 해외 장기사역자는 5년 이상 아프리카 세네갈,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르완다, 우간다 등지에서 농업, 지역개발, 교육 등의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방향과 일치하는 성도로, 외국어에 능통한 업무 경험자를 모집한다.

해외 장기사역자로 선발되면 Acts 29비전빌리지와 NGO 더멋진세상에서 훈련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abetterworld.or.kr
문의: 02-2271-224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 아트비전 정기전 'Anointing(기름부으심)'

온누리교회 미술선교회 아트비전 정기전이 한창이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1층 카페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정기전의 주제는 Anointing(기름 부으심)이다. 아트비전 소속 미술인들이 코로나19를 통해 겪은 감정, 묵상, 기도와 예배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이미란 작가(아트비전)는 "작품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2-3215-3434

'스타트리 협동조합' 개원예배

무슬림 선교하는 이주민 선교기관

스타트리 협동조합 개원예배를 지난 11월 28일(토) 스타트리 협동조합 사무실(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61 3층)에서 드렸다. 스타트리 협동조합 스태프와 후원자, 2000선교 및 온누리M미션, 두란노해외선교회(TIM)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류정미 성도(타교회)는 "이슬람권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직업교육과 복음을 전하는 스타트리 협동조합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고들라스 형제(인도네시아)는 "스타트리 협동조합을 통해서 더 많은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경원 선교사(온누리M센터)는 "많은 분들의 섬김과 후원 덕분에 스타트리 협동조합을 개원할 수 있었다"면서 "무슬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경숙 목사(온누리M센터)는 "무슬림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스타트리 협동조합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두란노어머니학교가 찾아갑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개설 신청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두란노어머니학교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싶은 교회와 단체들을 찾아간다.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물품 및 개설 메뉴에 있는 '개설 신청하기'란을 클릭하면 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교회 및 기독교 단체가 대상인 '일반 어머니학교', 기독교 색채를 배제하고 관공서와 기업, 다문화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열린 어머니학교', 교도소, 외국인 여성 노동자, 선교사, 사모 등이 참가하는 '특수 어머니학교', 해외에서 선교사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해외 어머니학교' 등이 있다.

문의: 02-2182-9114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모세오경' 온라인 세미나가 2021년 1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모세오경 세미나는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전체 큰 그림을 배우고, 모세오경 각 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핵심단어와 주제를 배우는 과정이다.

박철현 교수(총신대 구약학)가 강의한다. 회비는 24만 원이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578-3456

CGNTV, 서울예술대학교 산학협력 업무협약

CGNTV가 경험과 재능을 갖춘 기독교 콘텐츠 제작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서울예술대학교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2월 2일 열린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서울예술대학교 이남식 총장과 CGNTV 이용경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예술대학교 이남식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쌓게 될 학생들의 실무 경험이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고, CGNTV 이용경 대표는 "재능 있는 제작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서울예술대학교와 함께 미디어 선교를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01206-1322□-□□_□□□□□ 20. 12. 4. □□ 7:27 Page 12

▌공동체 맞춤전도집회를 기다리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우리 아버지

/ 김규리 성도(영등포구로공동체)

나는 중국에서 태어나 기독교와 먼 문화에서 자랐다. 미신문화에 익숙한 환경이었고 아버지는 기독교에 반감을 갖고 계셨다.

나는 12년 전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때 복음은 나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다. 아버지는 조금씩 회복되고 변화되는 나를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꾸셨다.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다녀와서 그날 들은 말씀과 은혜를 어머니에게 나눌 때 묵묵히 들어주셨다.

예수를 믿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수록 부모님 구원에 대한 고민이 쌓여갔다. 사는 곳이 다르고, 오랜 세월 쌓인 기독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어려울 거라는 회의감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9월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아버지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해'라는 생각만 떠올랐다. 나는 무작정 영사관으로 달려갔다. 영사관으로 가는 내내 속으로 울부짖었다.

"하나님, 늦었지만 제가 아버지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비자를 이틀 만에 받을 수 있었고, 항공권도 구할 수 있었다. 상해에서 2주 자가격리하는 동안 매일 아버지의 상황을 전달받으며 어떻게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했다. 처음으로 중보기도의 절실함을 느끼고 순장님과 순원들께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아버지를 보는 순간 시간이 없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 나는 틈만 나면 아버지 곁에서 시간을 보냈다.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아버지와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말수는 적지만 속이 깊고 인정 많았던 아버지, 나를 가장 걱정해주시고 묵묵히 사랑해줬던 아버지가 혼자서는 물 한 모금을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이 몹시 애달팠다. 아버지는 조용히 내 품속에서 숨을 거두셨다. 아버지와의 헤어짐이 인간적인 정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슬프다. 그러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

어머니가 외로움과 홀로된 두려움으로 많이 약해져 있다. 이제는 어머니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다. 어머니를 공동체 맞춤 전도집회에 초대할 예정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소망한다.

▌부천 성경암송스쿨 수료 간증

나의 기도문

/ 이도희 성도(부천 한사랑공동체)

1년 가까이 TV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공급받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점점 줄어들었고, 세상일을 더 가까이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부천 온누리교회 한사랑공동체에서 줌(ZOOM)을 활용해서 성경암송스쿨을 오픈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다. 한사랑공동체는 부천 온누리교회 인근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공동체다.

나는 6주 동안 줌으로 한사랑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매주 시편 1편씩을 암송했다. 단순한 성경 암송이 아니라 마음 판에 말씀을 새기는 과정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 또는 몇 십 번씩 말씀을 암송했다. 말씀이 나의 삶에 스며들어 갔다. 칠판에 말씀을 써놓고 암송했다. 그러다 보니 7살 된 아이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암송했다. 매일 밤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성경구절을 암송했다. 아이가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기도드릴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뿌듯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 갔다. 온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럼없이 말했다. 그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작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실감했다. 나의 기도문을 몇 자 적어본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부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지쳐가는 심신을 붙들어주셔서 천국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야곱의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북한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북한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가위 블레싱 간증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 김향 자매(요셉공동체)

포천 ODO(One day Outreach)사역은 2017년 경기도 포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평화의집'에 나오는 아이들과 매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아이들은 매우 공격적이었고, 분노가 가득했다.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유일한 놀이였다.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 요셉공동체 청년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다.

포천 지역아동센터의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2019년 온누리교회의 도움으로 '하랑센터'가 세워졌다. 하랑센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가 터졌다. 모든 예배와 사역을 멈춰야 했다.

하랑센터에 나오는 아이들 가정은 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주민 가정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한국인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는 다문화가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2주에 한 번씩 하랑센터에 가서 어린이 예배를 섬기다가 최근에는 최소인원으로 매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명절에는 아이들과 어울려 민속놀이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떠들썩하게 보냈는데 올해 추석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러한 활동이나 행사를 할 수 없었다.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다. 그 대신 대학청년부 한가위 블레싱 행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전달받았다. 우리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각 가정에 필요한 먹거리를 종류별로 전달하기로 했다. 하랑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달이 가능했다. 하랑센터에 나올 수 없는 가정은 직접 찾아가 전달했다.

하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 언제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신다. 그 사실이 큰 은혜이자 감사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개인의 신앙이나 사역에서 주춤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이 더욱 기대된다. 그 과정에서 요셉공동체가 쓰임 받기를 기도한다.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나에게 찾아온 작은 변화들

/ 이기선 성도(강남A공동체)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나만 위해서 지내온 시간이었다. 사실 아직도 그렇다. 하지만 코로나의 재난과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의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고 전도의 당위성을 마주하게 되었다. 의무감으로 전도학교를 신청했다. 이후 과정 속에서 중도포기하고 싶은 시간도 있었지만 "이 시대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설교 말씀은 이 강의를 듣는 내내 나를 돌아보게 했다. 그리고 나는 전도학교를 통해 작은 세 가지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

첫째, 지인 중에 전도 대상자를 구체화하니 '가치관이 다 형성된 성인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다. 그 순간 그 불가능,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다시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었다.

둘째, 나의 전도 대상자는 30년 된 학교 친구들이었다. 그들에게 교회에 나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진 못했다. 그러나 전도학교를 계기로 복음을 전하며 친구들의 삶과 나의 간증을 나누니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다. 친구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게 되었다. 전도 이후 나도 모르게 친구들의 영혼과 투병 중에 계신 친구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속에서는 따뜻함이 계속 올라왔다. 이것은 단지 과제를 위해 가까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작은 걸음마를 떼었을 뿐이다. 요단강에 발을 넣어야 요단강이 열렸던 것처럼 작은 한 걸음 순종하여 복음을 입술로 전하니 예상치 못한 변화의 길이 마음에 열린 것 같다.

셋째, 전도 툴을 늘 준비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맛보길 원하는 마음을 더욱 얻게 되었다. 창립35주년 주일설교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하셨다. 이제는 나도 최고의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행복을 더욱 경험하고 싶다. 그 '최고의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20201206-1322□-□□_□□□□□ 20. 12. 4. □□ 7:27 Page 13

장로칼럼

일대일제자양육 길잡이

박공 장로
(신용산공동체)

코로나19 사태로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과정과 양육자 과정이 잠시 중단되었던 지난 3월 출판된 〈왜 일대일 제자양육인가〉를 읽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직면하는 온갖 시험을 결코 이기며 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다. 제자가 된다는 것과 제자로 산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일대일사역을 오랫동안 담당하고 있는 이기훈 목사님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일대일제자양육의 이론과 실제를 총괄적으로 정리했다. 이 책은 온누리교회의 역사와 함께 해오고 있는 일대일제자양육의 이론을 성경적으로 정리해 놓은 최초의 책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일대일사역과 양육에 필요한 내용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일대일 사역자들과 양육자들이 필독했으면 좋겠다.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 대서양의 지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지도는 갖고 있는데 바다로 나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고, 지도 없이 바다로 나가는 것은 위험할 뿐이다. 신학이란 대서양을 횡단할 때 필요한 지도와 같은 것이다. 그 지도는 수백, 수천 명이 직접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길잡이다.

〈왜 일대일 제자양육인가〉 역시 대서양의 지도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과정과 양육자 과정, 양육자 재교육 과정을 진행해 오면서 터득한 경험을 토대로 쓰인 책이기 때문이다. 이론은 많은 경험이 쌓여야만 정리할 수 있다. 이 책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론과 실제이기 때문에 모든 양육자들에게 훌륭한 지도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일대일제자양육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사실 그동안 누군가에게 일대일제자양육을 소개할 때마다 말로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이 출판되면서 누구에게든지 일대일제자양육에 관해 알기 쉽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책은 내게 일대일제자양육에 관한 새로운 깨달음을 몇 가지 주었다. 첫째, 오랜 시간 동반자 과정을 섬기면서 나도 모르게 사명감이 흐려져 가고 있었는데 큰 도전을 주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성도로 부르시지 않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대일제자양육은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제자를 낳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셋째, 일대일제자양육에 대한 성경적 이론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해오면서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에게 큰 만족을 주었다. 넷째, 이 책은 일대일제자양육을 할 때 필요한 영적인 깊이를 더해주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동반자를 양육하기 이전에 양육자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 책이 일대일제자양육의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책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권사칼럼

여호와를 알기 위해

김명신 권사
(부천 온누리교회)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일상이 너무나 평범하다. 문득 지난해가 내게 감사하고 기쁘고 벅찬 한 해였다는 것이 생각났다.

지난해 11월 나는 권사 직분을 받게 되었다. 내 나이 예순 아홉. 한 해만 지나면 모든 직책을 내려 놓아야 하는 나이다.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양육프로그램을 따라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직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나를 잘 아는 권사님에게 직분을 받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아마 그때부터 임직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안수집사 임직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가 생각난다. 우리 조 모두 나와 비슷한 연배들이어서 너무 기뻤다. 권사 임직교육을 받을 때 한두 명만 바뀌고 또다시 같은 조원들과 한 조가 되어서 서로 반갑고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임직교육 마지막 날 헤어지면서 모두 건강관리 잘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고 다짐했었다. 늘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약속하며 헤어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나 흘렀다.

또한 지난해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제목이 이루어진 한 해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다. 기도하면서도 정말 남편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의심이 많았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런데 남편이 온누리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권사 임직을 받기 몇 달 전 알게 되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정말 뛸 듯이 기뻤다. 요즘은 아침 7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첫 차를 타려고 새벽 5시 10분에 집에서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친다. 이제 남은 가족의 영혼 구원도 초조해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가족의 영혼을 구원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추었지만 또 다른 은혜를 누리고 있다. 비대면으로 말씀을 공부할 때는 시작한 지 1시간만 지나도 머리가 아팠다. 그 다음 시간들은 거의 집중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영상으로 강의를 듣다 보니 내가 듣고 싶은 만큼 들을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다시 복습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말씀을 버리는 일 없이 모두 마음에 넣고 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살전 5:16~18).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동역자들을 못 만나서 아쉬움이 많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함이 있어서 힘든 한 해지만, 그래도 감사할 거리를 찾다보니 너무 많은 것을 깨닫는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호 6:3).

앞으로도 어떠한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여호와를 알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앙에세이

그분은 나의 어머니이시다!

강미향 목사
(가정사역공동체)

그분은 학식이 많은 분이 아니었다.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떠나셨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마지막 생을 어떻게 마감해야 가장 복된 인생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이시다.

어머니가 소천하신지 2년이 지났지만 순간순간 보고 싶고 생각난다.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살았던 생을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린다. 어머니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네 단어만 있는 분처럼 사셨다. "000는 잘 할거다", "고맙다", "괜찮다. 그만큼 하는 것도 어디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다."

내가 부모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돕는 것이 선교사를 돕는 것이고, 자녀 집을 청소하는 것이 선교지 한자락을 청소하는 것이라면서 자녀 집에 오게 된 것을 선교지 파송이라고 생각하셨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았다. 평상시 쓰시던 그 네 마디의 말씀만이 그분의 입술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한다면 귀가한 가족을 반갑게 맞아주시며 "수고했다"가 첨가된다. 어머니라고 왜 짜증날 때가 없고, 불평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어머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생명의 언어를 선택하신 것 같았다.

명절이 되고 축하할 일이 있어 옷을 해드리면 "옷을 쌓아두게 하지 마라. 있는 옷도 다 못 입고 하늘나라 간다"고 말씀하셨다. 늘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었다.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섭섭한 것도 많아지고 어린아이같이 된다는데,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

어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Acts29비전빌리지에 가셨다. 온누리교회의 비전이 'Acts29'라는 것을 들으시고는 그날은 모든 기도제목을 내려놓고 선교사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로 정하셨다. 무려 14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홀로 묵묵히 다니셨다. 어머니는 Acts29비전빌리지에 기도하러 가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갑작스런 소천 소식에 너무 많이 당황했다. 어머니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평소 나에게 하셨던 당부가 생각났다.

"강 목사, 내가 알려줄 것이 있는데 옷장 윗칸 상자에 내 수의가 있으니 당황하지 말게."

입관 때 그 상자를 열어보았다.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수의는 일반적인 수의였는데, 어머니의 수의는 평상시 입으셨던 한복이었다. 교회 가실 때나 행사가 있을 때 입으셨던 그 한복이었다. 어머니는 그 한복을 깨끗이 손질해서 아버지 수의 밑에 넣어두셨다. 우리는 그 한복으로 어머니를 입관해드렸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우리 가족들은 어머니의 묘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각자 기억들을 나누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예수님을 닮아 아름다운 삶을 산 현숙한 여인."

나는 살아있는 신앙인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가족을 위해 삶을 희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켜가신 나의 사랑, 나의 영원한 멘토셨던 나의 어머니.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0201206-1322□-□□_□□□□□ 20. 12. 4. □□ 7:27 Page 14

어느 선교사의 순교(殉教) 묵상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가?"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며칠 전 한국 교계에서 유명한 대형교회의 원로목사님이셨고, 예장합동 교단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모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들었다. 그분의 간증은 유명해서 유튜브에서 금방 찾아서 들을 수 있다. 어느 날 평생 대형교회의 권사님으로 지낸 그분의 장모님이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한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은 어떤 곳이야?"

그 솔직한 질문이 그 목사님께도 아주 충격적이고 엄중하게 들렸다고 했다. 그분의 장모님은 큰 교회를 60년 넘게 섬기셨다. 새벽기도회에 거의 빠지지 않았고, 기도를 아주 많이 하셨다.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70대에 신학 공부까지 하셨다. 그런데 100세에 근접한 나이에 권사님이 사위인 목사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셨기에 그 충격이 엄청났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했고, 주님께도 다시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목사님이 주님께 "저는 순교하기 원합니다. 순교하게 해 주세요"라고 여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동안 응답이 없었고 한참 기도를 하고 나서 주님이 응답을 하셨다.

"너는 순교할 자격이 없어. 너는 순교하지 못해."

"왜요?"라는 질문에 주님은 아주 솔직한 대답을 주셨다.

"너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야. 그래서 너는 순교할 수 없어."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금식하며 몇 주 동안 더욱 진지한 기도를 했다.

"주님, 제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말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경험하고 천국과 지옥을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한참 시일이 흐르고 그 목사님이 8일에 걸쳐서 꿈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여행했다. 그가 경험한 천국과 지옥 여행은 진지한 질문과 금식 기도의 열매였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요즘 탈북자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제법 들었다. 몇 가지 이야기가 내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 중 하나가 보위부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끌려가면 집결소라는 곳에서 조사를 받는다. 그곳에서 조사받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중국에서 교회에 간 일이 있는가? 남한 선교사들을 만난 일이 있는가? 성경을 읽은 적이 있는가?"라고 한다. 그 질문에 "절대로 교회에 간 일이 없다. 남한 선교사를 만난 일도 없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다"고 대답해야 무사하다고 한다. 혹여 자신이 교회에 간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교회에 가면 밥을 먹여 준다고 해서 갔던 것뿐이다. 진심으로 믿은 것이 아니니 용서해 달라"고 해야 보위부로 이송돼 고문을 받고 수용소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보위부 감옥에 끌려가서 집중 조사와 고문을 받으면서도 몰래 기도하고, 전도하고, 보위부 조사관의 질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며 수용소로 끌려간 이들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밝히면 총살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가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말이다.

중국의 교회를 찾아가 몇 개월 동안 집중적인 선교 훈련을 받고 북한으로 되돌아간 한 탈북자 출신 목회자가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이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들이 자신의 동료들이고 이름과 얼굴, 면면을 너무 잘 알기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며 그들의 용기에 무척 놀랐다고 한다. 당시 국경지대의 보위부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 보위부 군관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북송돼 온 이들 중에서 남한 선교사에게 선교 훈련을 받고 온 이들이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기에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때 한 사람, 두 사람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모두 7명의 청년들이 일어섰다고 한다. 모두 중국 변방의 비밀 아지트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북한으로 돌아온 리더급 전도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한다. 그들은 20대 초반 청년들이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잠시 눈 질끈 감고 시인하지 않았다면 1~2년 감옥살이 하고 풀려나 더 많은 선교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들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오히려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칭찬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순교의 길을 선택했다.

순교를 선택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종말론적 신앙에 있다. 6개월, 1년 동안 성경을 백번 읽고 집중적인 전도훈련을 받고 나면 탈북자들의 입에서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천국에 가니 여한이 없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온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선발돼 복음 전도자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갑자기 체포돼 북송되기도 한다. 그들은 그렇게 돌아가서 비밀리에 전도하고 지하 교회를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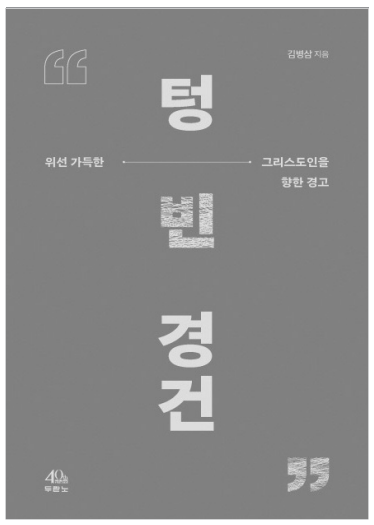
그들이 순교자들이다. 죽음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라"고 보위부 조사관들에게 말한다. 당황한 보위부 조사관이 오히려 "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리기도 한다. 그런 순교자를 만난 보위부 조사관들이 감화를 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조사관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답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넌지시 "너 예수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우리는 죽음 앞에 서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순교하고 싶은가?"

/ 김순교 선교사(남아시아 A국)

두란노 신간

참된 경건과 7화(禍) 선언



〈텅 빈 경건〉
김병삼 저 | 두란노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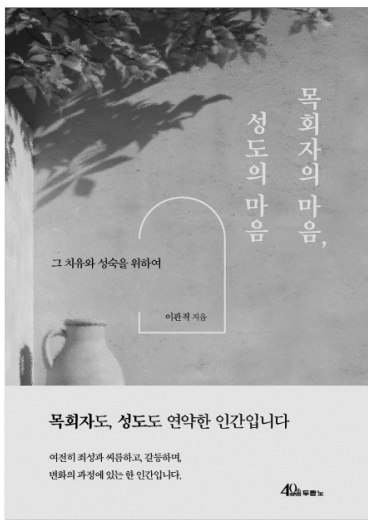
예수님은 위선을 경고하셨다. 겉을 번지르르하게 치장하고 선으로 가장하는 위선과 마음은 더러우면서 겉으로는 깨끗하고 경건한 척하는 이중성을 책망하시며 돌이키라고 명령하셨다. 참된 경건이 무엇일까? 김병삼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의 '7화(禍) 선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한다.

김병삼 목사는 7화 선언을 '천국 문을 가로막는 자에게',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자에게', '헛된 맹세를 하는 자에게'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또한 저자는 7화 선언을 듣고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일곱 번의 질책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중성을 경고했는데 이들 이야기를 듣는 너희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었듯 너희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경험하는 악한 일과 아픔에 대하여 너희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참된 경건을 회복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죄성을 겸손하게 인정하자!



〈목회자의 마음, 성도의 마음〉
이관직 저 | 두란노 | 14,000원

우리는 항상 성장하는 신앙을 꿈꾸지만,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다. 이 사실은 목회자나 성도나 다를 바 없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 인간이기 때문이다.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단순히 인간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임을 겸손하게 인정하자는 것이다.

〈목회자의 마음, 성도의 마음〉 저자 이관직 교수는 "목회자도 성도도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며 먼지에 지나지 않은 취약한 존재"라며 "하나님이 이를 잘 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조언한다. 자신의 실제 모습을 성령의 조명으로 직면하고 치유받아 성숙에 이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저자는 "목회자는 옛 자기의 모습이 여전히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인정할 때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성도에 대해서는 "인격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인의 마음은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무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죄성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너셈 7층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 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an Dr. Mairangi,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
AGAWA-KU SHIMAI-CHO61 EHWA DAIA-
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김관수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ǒ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신기섭
김상수 이해영 신동식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지영 고범석 권용갑
길혜영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렴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무엘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행삼 백인규 변대섭
서 현 송석근 송재호 신원석
스티브차 안사무엘 앤드류김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원유경 웨슬리맥커리 유수열 유영순
유승현 유진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주기철 지대근
최대흥 최성민 최성석 최용준
최혁중 하청훈 한화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승겸 김유영 김한국 신현민
윤수신 장재원 전병천 최종현
최성규 하성희 한은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박이호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강정모 김기범 김바울 김반석
김병철 김세현 김종영 김혜경
네트라 랜디빠당줄렉스 마주마누룽 민현식
바랏라살리 박근명 박씨마 싱루아마놉
사카르 이원준 이승윤 이진이
유승덕 윤치연 임선아 장미숙
제인량 최병구 최일관 최정현
차제이미 크리스티안

◈전도사(파트)
고원규 권수진 권영현 김근희
김두일 김동규 김삼인 김세환
김수영 김의연 김은하 김은혜
김용태 김영신 김정미 김정호
김지선 김진성 김진희 김종균
김태광 김태영 김태주 김태환
김한국 나지혜 노동준 노태규
민혜영 박미애 박소망 박영규
박이호 박영우 박유진 박지수
박찬양 박태훈 박현식 빌 케
배명지 백승현 서영찬 서영철
송동주 송유진 송선애 송우항
승소영 신기한 신대종 신동혁
신현아 양주영 여지휘 여현구
오국헌 오명도 오준현 오태경
오현교 용상은 우승민 우형석
윤경선 윤신혁 윤슬기 윤지은
윤준석 윤태정 윤효정 이경건
이경아 이민희 이사무엘 이상욱
이상은 이선영 이성광 이세영
이송희 이수호 이승기 이신임
이엘렌 이용민 이웅희 이은정
이진기 이진수 이주원 이찬양
이태호 이호준 이현석 이향순
임광명 임노완 임송아 임지성
임진숙 임정민 장광석 장새힘
장요셉 장윤진 전소리 정순덕
정에스더 정연상 주영상 주하늘
지수정 진성희 최규종 최은영
최선재 최휘준 표명철 한영철
한용태 허루슬란 황귀희 황연신
황유일 khagvasuren Gan-Otgon
Donald Joshua Wabwire

◈사역장로
강기석 강인지 강의선 강찬석
구재영 권도원 권영석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상송 박석봉
박영태 박용국 박찬빈 박태성
배종수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서창희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우권 신현종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영섭 윤영오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융대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택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천영무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피터웰디 편무옥 하영철 하용기
한규종 한덕종 한종대 한형식
함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종철 황영옥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은철 강창재 강철호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권순형
곽진성 곽희준 권득한 권오습
권오혁 권용성 권용한 금세종
김경돈 김관근 김관식 김광하
김기섭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민찬
김명세 김명현 김명훈 김병순
김병옥 김상섭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신원 김연상 김영관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용기
김용호 김웅배 김 원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정훈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해기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상권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정진 남주언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쌍찬 문영기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봉래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종현 박지수 박재두
박치완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 문
배기영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송동섭 송영범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영각 신철우 신학철 신헌승
심길섭 심상달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헌 양상식 양춘경
양충식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성훈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병진 유재홍 유 형
육동건 윤석우 윤석주 윤영각
윤현덕 이경찬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욱
이동희 이백용 이봉의 이상기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우경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광 이재규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우
이종철 이태열 이태환 이학일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 훈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 광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응화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조희동 주재량 진종구 차준구
차준한 최도성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호림
하성기 하주헌 한갑수 한백진
한복규 한상규 한양희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함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처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전태경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이혜경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에셀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박요셉 박윤진 박지훈
배영근 신선호 심현보 안지연
안희준 오주영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지원 이지혜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진우 조민지
천은진 최영균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관수
김철진 김태완 박신웅 송영동
송재호 유현목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
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박재영 서재범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강일하 강찬호 금동섭
김기홍 김도일 김명성 김인숙
김시연 김진우 김재형 김찬우
김태환 노경호 박대원 박수환
박주영 박종훈 방지남 배성우
백인호 변범섭 서성광 신영흠
손미경 엄영기 우윤상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택
이정주 이형근 임봉순 오정택
장제홍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영진 최 욱 최정무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홍정표
Bob Koo Joseph C hu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은주 김성민 김성연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지현
김진완 김창식 김현경 구혜선
마커스 문하나 박미은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현욱
배윤희 서재욱 설산정 손주은
송민선 신기원 심형진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재경 이주영
이현우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지자영 전희동
정 결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진영 지자영 조 단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하보라 하청훈
한현희 코바야시 메구 핸슨오
Christine Daniel Kim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Rachel Back
SamLee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김경덕 김현중 남 영
박이훈 서인택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시무장로
고성환 권덕수 김수호 김재동
박호택 성현제 손정래 신중수
여훈필 우승호 이광철 이문호
이상헌 이준상 장민용 정헌주
조규배 조성민 코다이라노리히로
허규회 홍관희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임헌식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김좌겸
김준걸 김진용 김현희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결혼·소천

■ 결혼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13:00 양재 사랑홀
주창배, 이순임의 아들 주형진(온누리교회)
최태령, 이성미(대구평강교회 장로, 권사)의 딸
최은지(온누리교회)

■ 소천

11/27(금) 분당B 장우현 성도 모친상 고 김난이
11/27(금) 강남E 고 고광필 장로
11/28(토) OCC 이경선 성도 부친상 고 이재호
11/29(주일) 성동광진 정영열 장로 부인상 고 이숙자
11/30(월) 가정사역 고 박경화 집사
12/1(화) 서초A 장혜경 권사 부친상 고 장길상
12/2(수) 양천 이효준 권사 모친상 고 손옥순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내용: 중장기쉼터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후원과 자원봉사 요청
문의: 유호연 실장(031-399-7997)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가전제품 및 소형 가구, 생필품 후원요청
내용: 쉼터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주거물품 및 생필품 후원 요청
문의: 이수진 팀장(031-360-1824)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무료취업 지원
내용: 고령자맞춤직업 일자리 알선을 통한 재취업 지원(경비원, 요양보호사 등)
문의: 김수지 사회복지사(02-796-766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IT체험존 봉사자 모집
내용: 퍼스널, 그룹형 인지훈련로봇, AI로봇, VR 체험존 활동보조
문의: 송승현 사회복지사(02-3474-6080)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전문재능 봉사자 모집
개요 : 10시~16시, 내곡 쉼터, 전문분야(법률, 금융, 심리, IT, 건강 등)
문의: 김지예 사회복지사(02-6953-7134)

서초50플러스센터 글짓기 대회 개최
내용: 센터의 건립 응원 문구 또는 격려의 메시지 작성
문의: 변은영PM(02-579-5060)

재 정

십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광고

생명의 삶 마태복음 개관 세미나
일시: 12월 14일(월) 유튜브 두란노서원 공식 채널
강사: 이풍인 목사(개포동교회 담임, 〈생명의 삶〉 본문 해설 필자)
대상: 〈생명의 삶〉 독자, QT리더, 목회자
회비: 없음
문의: 02-2078-3252

서빙고 사회선교본부 계약직 간사 모집
모집: 계약직 간사 2명
업무: 탈북민 사역(주중사역 담당 1명, 남녀 기숙사 담당 1명)
우대: 주중사역 담당(아동교육 관련 경력자 우대),
남녀기숙사 담당
(여성 한정, 요리가능, 여기숙사에 거주 가능자)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알림판 참고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CGNTV 프로그램

특별 다큐멘터리

다큐_동성애, 그 무서운 진실

법과 인권, 이데올로기의 모양으로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실체들을 알아보고
바른 기독교 윤리와 가치를 세웁니다.

1편 창조질서에 봉기를 들다, 성 혁명
2편 동성애의 비밀스러운 움직임, 퀴어신학

다시보기 CGNTV 유튜브 채널, 웹사이트

CGN 투데이

CGN 투데이 기획 보도_이제는 생명이다

낙태, 저출산, 자살, 입양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봅니다.

방송시간 매주 수요일 낮 12시 방송 (12월 한 달간 방송)

다시보기 CGNTV 웹사이트

2021년 CGNTV 말씀달력 판매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길 바라며
CGNTV 말씀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연말에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격 12,000원
구입처 온누리교회 두란노서점 , 택배판매 가능 (택배비 별도)
문의 02-796-2243

CGNTV 정 기 후 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 R S 060-705-0000 문 의 02-796-2243